

중국 도시가 유명화되고 있는 이유

도시 면적의 빠른 증가, 도시 인구의 더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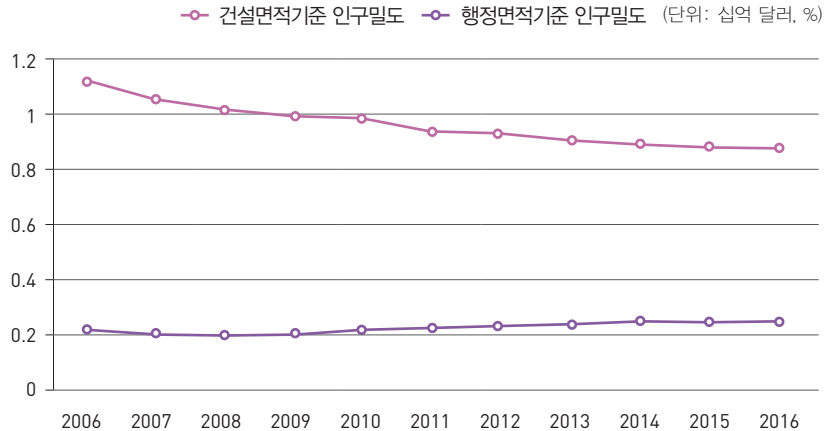
[글] 김도경 교수 jindujing@knue.ac.kr
한국교원대학교

중국의 '유명도시'는 보편적인 현상

2006년 중국의 도시 인구는 1km²당 대략 2,200여 명이었다. 10년 후인 2016년에는 수치가 2,400여 명까지 증가했고, 2000년대 말에는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한때 감소하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 완만한 증가세였다. 인구 집중은 도시화의 핵심 현상이므로 이러한 흐름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도시'를 행정구역 단위로 이해한 결과이다. 중국의 행정구역은 지역 중심지가 그 주변 일대를 함께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상의 '도시'에는 상당한 규모의 농촌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즉 '농촌'이 '도시'로 오인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실제 도시와 행정적 도시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개발 지역을 의미하는 '건설구(建成區)'가 중국의 실제 도시를 더 잘 묘사하는 개념일 것이다.

건설구를 통해 중국의 도시 인구밀도 추세를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2006년 중국의 도시 인구는 1km²당 대략 11,000여 명이었고, 2009년에는 10,000명 이하로 떨어졌다가 2016년 8,800명 선까지 내려갔다. 도시를 행정구역 단위로 하여 인구밀도를 조사한 경우에는 분명 증가세였는데, 건설구로 조사하자 감소세로 바뀐 것이다. <그림1 참조>

그림1 중국 도시 인구밀도 변화



자료 중국도시건설통계연감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평균값이 낮은 착시 효과가 아니다. 즉 특정 지역의 도시 인구밀도가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전국 평균값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중국의 거의 모든 성에서 보편적으로 도시 인구밀도가 저하된 것이다. 2011년 기준, 중국의 31개 성(省) 가운데 24개 성의 도시 인구밀도가 감소했다. 5년 사이에 1,000명 이상 감소한 도시도 여섯 곳이나 된다. 일견 경제적으로 낙후한 중서부 지역 도시들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대표적인 연해(沿海) 지방이라 할 수 있는 광둥(廣東)은 물론이거니와 푸젠(福建)과 산둥(山東) 같은 지역에서도 도시 인구밀도가 줄었다. <표1 참조>

도시 인구밀도가 증가한 성의 경우에도 그 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연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예를 들어 2016년 저장성의 총 30개 현급 이상 도시 가운데 2011년보다 도시 인구밀도가 증가한 도시는 12개에 불과했다. 그 12개 도시 중에서 항저우(杭州), Ningbo(寧波), 샤오싱(紹興) 3개 도시는 각각 푸양(富陽), 평화(奉化), 상위(上虞)가 관할구로 편입되어 인구가 증가한 경우이다. 푸양, 평화, 상위의 본래 인구 및 건설구 면적을 계산식에 넣으면 이 세 도시의 도시 인구밀도 역시 실질적으로는 감소했다. 따라서 30개 도시 중 9개 도시만이 도시 인구밀도의 증가세를 기록한 셈이다.

중국의 '유명도시' 현상은 특정 지역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다. 이때의 '유명도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접어두고, 상주인구가 적은 것을 핵심으로 본다면 중국의 거의 모든 성의 도시에서 나타나는 인구밀도 저하 현상은 유명도시의

보편화를 의미한다. 네이멍구(內蒙古)의 어우얼뒤스(鄂爾多斯)와 같이 유명화 현상이 뚜렷한 정도¹는 아니라 해도 중국의 거의 모든 성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즉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유명도시’는 중국에서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중국의 독특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검토해야 한다. 개별 지방이 처한 특수한 환경이나 특정 지방정부의 무지 혹은 탐욕이 유명도시를 낳은 것이 아니라, 각 지방에 공히 적용되고 있는 중국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유명도시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 제도적 환경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토지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후커우(戶口) 제도다. 전자는 도시 개발 면적의 확대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반면, 후자는 농촌 인구의 도시 이주를 늦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도시 인구밀도의 계산식으로 논하자면, 분자의 증가 속도가 분모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1

彭日东·张君, 对鄂尔多斯以“房票”去库存实现棚户区改造的调查, 北方金融 2017年 第4期; 刘科, 金融助力房地产去库存研究——以鄂尔多斯市为例, 华北金融 2017年 第2期.

2

일반적으로 전자는 전민소유(全民所有)라고 부른다. 말 그대로 전 국민이 함께 소유한다는 의미인데, 그 실제 양상은 국가(지방정부)가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문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국가(지방정부)는 토지를 통해 만들어진 수익을 국가(지방정부) 재정에 편입시키기 때문에 전민소유의 이념이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후자는 이와는 그 양상이 많이 다르다. 보통 집체소유(集體所有)라고 부르는데, 이는 농촌의 자연 촌락이 그 소유권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중국의 공식적인 행정 기구는 향(鄉)이나 진(鎮), 혹은 가도판사처(街道辦事處)까지만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아래의 무수히 많은 농촌 마을은 기본적으로 자치의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농촌 마을의 경작지와 주택부지 등은 모두 그 마을의 자치 조직이 소유권을 갖는다. 이는 배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자치 조직의 구성원들만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유로 증가하는 도시 면적

중국의 모든 토지는 공유제의 원칙을 따르고 있지만, 그 실제 양상은 도시와 농촌이 사뭇 다르다. 도시 토지는 국가(지방정부)가 소유권을 갖지만, 농촌 토지는 농촌 마을의 자치 조직이 소유권을 갖는다.² 따라서 토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도시는 국가(지방정부)에게, 농촌은 그 마을의 자치 조직에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도시 토지는 농촌 토지와 달리 사용료가 따를 수 있다.

그런데 도시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의 유휴 토지가 충분치 못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사용 목적에 따라 도심과 변두리의 구별이 중요해지기도 한다. 자연스레 도시 주변의 농촌 토지를 필요로 하는 도시 주민들이 늘어난다. 그러나 그들이 농촌의 자치 조직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도시 토지와 농촌 토지는 그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도시의 시장 주체들이 농촌 토지를 사용하려면 우선 농촌 토지가 도시 토지로 바뀌어야 한다. 즉 소유권이 농촌 자치 조직에서 국가(지방정부)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다. 결국 농촌 토지를 필요로 하는 도시 주민들은 국가(지방정부)를 거래 중개인으로 내세우게 된다. 국가(지방정부)가 그들을 위해 먼저 농촌 토지의 성격을 바꿔주어야, 비로소 그 농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거래가 그렇지만, 중개인이 필요한 거래의 경우에는 중개인의 몫이 크

표1 2011~2016년 중국 성별 도시 인구밀도 변화

(단위: 만 명/km²)

성	2011년	2016년	증감	성	2011년	2016년	증감
전국	0.94	0.88	▽ 0.06	허난(河南)	1.03	0.96	▽ 0.07
베이징(北京)	1.41	1.32	▽ 0.09	후베이(湖北)	0.98	0.92	▽ 0.06
톈진(天津)	0.87	0.93	△ 0.06	후난(湖南)	0.95	0.95	-
허베이(河北)	0.93	0.85	▽ 0.08	광둥(廣東)	0.98	0.94	▽ 0.04
산시(山西)	1.06	0.98	▽ 0.08	광시(廣西)	0.86	0.82	▽ 0.04
네이멍구(內蒙古)	0.78	0.71	▽ 0.07	하이난(海南)	0.94	0.91	▽ 0.03
랴오닝(遼寧)	0.96	0.80	▽ 0.16	중칭(重慶)	1.00	1.08	△ 0.08
지린(吉林)	0.88	0.80	▽ 0.08	쓰촨(四川)	0.93	0.87	▽ 0.06
헤이룽장(黑龍江)	0.81	0.79	▽ 0.02	구이저우(貴州)	1.15	0.80	▽ 0.35
상하이(上海)	2.35	2.42	△ 0.07	윈난(雲南)	0.99	0.83	▽ 0.16
장쑤(江蘇)	0.76	0.73	▽ 0.03	시짱(西藏)	0.54	0.81	△ 0.27
저장(浙江)	0.82	0.87	△ 0.05	산시(陝西)	0.99	0.88	▽ 0.11
안후이(安徽)	0.79	0.76	▽ 0.03	간쑤(甘肅)	0.84	0.74	▽ 0.10
푸젠(福建)	0.91	0.83	▽ 0.08	칭하이(青海)	1.04	0.94	▽ 0.10
장시(江西)	0.84	0.80	▽ 0.04	닝샤(寧夏)	0.64	0.64	-
산둥(山東)	0.75	0.70	▽ 0.05	신장(新疆)	0.71	0.62	▽ 0.09

자료 중국도시건설통계연감

게 마련이다. 농촌 토지가 도시 토지로 바뀌는 이 거래에서도 국가(지방정부)는 중개인 자격으로 상당한 규모의 수수료를 챙긴다. 다만 그 수입은 관료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 재정으로 편입된다. 흔히 ‘토지 재정’이라 불리는 이 수수료는 도로, 다리, 상하수도 등의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사용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도시 인프라를 건설하지만, 중국에서는 이 토지 재정으로 도시 인프라를 건설한다. 어째서 국가(지방정부) 소유가 ‘전민 소유’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지점이다.³

문제는 중개인의 몫이 커지고 그에 대한 자각이 분명해지면서 중개인이 이 거래를 주도하게 된다는 점이다. 본래는 도시의 시장 수요에 기초해 토지 거래의 빈도와 규모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제 중개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그 빈도와 규모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시장 상황과 무관한 것들이 거래를 지배하게 되고, 그러면서 빈도와 규모의 수치가 급진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지방 재정의 확보가 이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1994년 분세제(分稅制) 개혁 이후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대부분 극심한 재정 부족에 처하게 되었다. 부가가치세와 같은 알짜 세수원이 모두 중앙 재정으로 옮겨짐에 따라 지방 재정으로 활용할 세수원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든 토지가 공유이기 때문에 재산세와 같은 세수원이 존재할 수도 없었다. 자연스럽게 지방정부는 자신의 유일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기존의 도시 토지를 내주면서 사용료를 받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나중에는 농촌과 도시 사이의 토지 거래를 적극 중개하면서 토지 재정을 확보하게 되었다.

현재 중국의 지방정부는 이 토지 재정을 극대화하려 애쓰고 있다. 농촌 집체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에는 가능한 한 낮은 보상금을 지불하려 들고, 도시의 시장 주체들에게 사용권을 넘겨줄 때에는 가능한 한 높은 사용료를 받으려 하는 것이다. 아예 별도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토지에 기초한 융자 체계를 확립한 곳도 많다. 시장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는 지방정부가 도리어 시장의 주체인 양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높은 도시 주택 가격은 이러한 ‘토지 재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의 신규 주택 가격은 도시 거주자의 가치분 소득보다 언제나 항상 높게 형성되는데, 이는 단순히 투기 수요나 주택담보 대출 시스템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신규 토지가 도시에 공급되는 과정에는 언제나 토지 재정이라고 하는 중개인 몫이 끼기 마련이고, 따라서 개발업자가 최종적으로 주택 상품을 시장에 내놓을 때는 이 토지 재정 부분이 주택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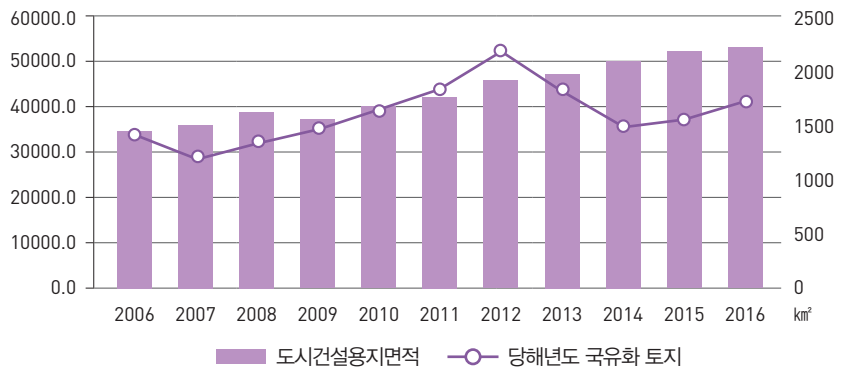
3 赵燕菁, 土地财政: 历史、逻辑与抉择, 城市发展研究 2014年 第1期.

없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주택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재정의 확보라는 비(非)시장적 요인에 의해서도 주택 가격이 결정된다. 토지 재정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은, 그런 점에서 틀린 말은 아니다.

여기에 중국의 간부 승진 제도가 이 변질을 부채질하기도 한다. 이제는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중국 정치에서 지방 관료들의 승진은 자신이 근무하는 지방의 GDP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 베이징대 경제학원의 야오양(姚洋)은 지방 간부들 사이의 ‘킵 대회’라 부른 적도 있다.⁴ 연차가 낮은 간부들 사이에서는 GDP 성장률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연차가 쌓일수록 GDP 성장률이 유의미한 지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짧은 재임 기간에 손쉽게 GDP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고정투자만 한 것이 없다. 그리고 농촌 토지가 도시 토지로 바뀌는 과정에는 언제나 고정투자의 증가가 수반된다. 따라서 많은 지방 관료들은 토지의 성격을 바꾸는 이 거래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그림2 참조>

정리하자면 중국에서 도시 면적의 증가는 다분히 정치적이다. 도시의 시장이 얼마나 많은 토지를 필요로 하는지는 그다지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지방 재정의 확보이고, 지방 관료들의 실적이다. 따라서 시장과 상관없는 정치적 요인들이 도시의 토지 공급 메커니즘을 지배하게 된다. 물론 중앙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토지 공급에 제동을 걸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제도적 환경에서 지방정부가 순수하게 시장에 기초해 토지 거래를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림2 중국 도시 건설용지 면적 추이(2006~2016)



자료 중국도시건설통계연감

⁴ 마을의 자치 조직이 소유권을 갖는다. 이는 배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자치 조직의 구성원들만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토

도시로 가지 않는 농촌 인구

중국의 후커우 제도는 농촌 인구의 도시 이주를 제한하는 억압적인 장치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농업 후커우와 비농업 후커우의 구별이 있고, 도시로 이주한 농촌 주민은 도시 주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농촌 인구의 도시 이주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인민에게는 모두 9년의 의무 교육 기간이 보장되는데, 이는 후커우 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에 따라 많은 농촌 주민들은 자녀와 함께 도시로 이주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에서 간과되고 있는 사실은 현재 2억 8,000만 명(2017년 기준)에 달하는 농촌 주민들이 이미 후커우와 상관없이 도시로 이주했다는 점이다. 2000년대 초 강제송환 조치가 폐지되면서 중국에서 농촌 주민의 도시 이주를 막는 법적인 장치가 사라진 것이다. 일부 특대도시를 제외하면, 중국의 거의 모든 지방정부들은 오히려 농촌 인구의 도시 이주를 장려한다. 안정적인 직장만 있다면 농촌 주민이 도시로 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도시 인구의 증가 속도가 더디다는 것은 후커우 제도를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필자는 여전히 중국의 후커우 제도가 농촌 인구의 도시 이주를 지연시킨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억압적인 방식이 아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억압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농민의 이익을 지켜주는 면이 있으며, 그 이익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농민 중 일부는 구태여 도시로 나가려 하지 않고 있다.

우선 중국의 모든 농촌 주민들이 자신의 경작지와 주택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농촌 토지는 농촌 마을의 자치 조직에게 소유권이 있다. 따라서 자치 조직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든 경작지와 주택

표2 2016년 중국 농촌의 소득원별 1인당 가처분 소득

(단위: 위안·%)

	임금소득	농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합계
금액	5,021.8	4,741.3	272.1	2,328.2	12,363.4
비율	40.62	38.35	2.20	18.83	-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 더욱이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집체에 납부해야 할 비용이 있었지만, 지난 2006년 이후로는 모든 비용이 폐지되었다. 물론 전적으로 농민을 위해 비용을 폐지한 것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비용이 폐지되면서 경작지 및 주택 부지의 사용권이 재산권에 가까워졌다는 사실이다.

경작지와 주택 부지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농촌 주민들은 두 가지 소득원을 갖게 된다. 2016년도 중국 농촌 주민의 가처분소득 통계를 보자. <표 3 참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들의 소득 수준이 아니라 소득원으로, 전체 소득의 40%가 임금 활동에서 만들어지고 38%가 농업 활동에서 비롯된다. 한 사람이 동시에 도시와 농촌에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할 때, 이 통계가 말해주는 것은 가족 중 누군가는 농업 활동에 종사하고 다른 누군가는 비농업 활동에 종사한다는 사실이다.

결국 현재 중국 농촌 주민의 삶은 두 가지 소득원에 기초한다고 말할 수 있다. 두 가지 소득원이 있어야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 둘 중 하나라도 없다면 농촌 주민의 경제 상황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농촌 가구가 무턱대고 도시로 이주할 수 없는 이유다. 게다가 도시에서는 주택 구입도 개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물가도 농촌에 비해 훨씬 높다. 이전의 두 가지 소득원을 대체할 수 있고 도시 주택비용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도시에서의 임금 소득이 월등히 높아야만 한다. 그래야 농촌 가구가 도시로 이주할 수 있게 된다.

더 중요한 사실은 농촌 토지 사용권이 점점 재산권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구태여 도시로 나갈 필요를 못 느낀다는 점이다. 대체로 후커우 제도만 아니라면 중국의 모든 농촌 주민들이 도시로 향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경작 기술이 있고 이미 고향 농촌에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농촌에 계속 남아 있을 확률이 더 높다. 실제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일자리를 잃었던 많은 1세대 농민공들은 대부분 고향 농촌으로 돌아갔다. 당시 2,000만 명의 농민공이 실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중국 사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모두 농촌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일

표 3 2010년 인구센서스 기준 농업 후커우 연령별 인구

(단위: 명·%)

	전체	40세 이상	35세 이상	30세 이상	2017년 농촌 상주인구
인구	662,805,323	272,474,546	325,475,140	366,602,386	576,610,000
비율	100.00	41.10	49.10	55.31	-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자리도 집도 없는데 굳이 낯선 도시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었다.⁵

이와 같은 농촌 인구가 극히 일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규모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인 수치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중국은 10년마다 인구센서스를 실시하는데, 가장 최근 자료인 2010년의 인구 센서스를 기준으로 볼 때 40세 이상(1970년 이전 출생자)의 농촌 후커우 인구는 기본적으로 농촌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로 볼 수 있다. 대략 2억 7,000만 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만약 그 기준을 35세(1975년 이전 출생자)로 낮추면 그 규모는 3억 명을 넘어선다. 참고로 2017년 현재 중국 농촌의 상주인구는 5억 7,000만 명이다. 즉 도시화가 계속 진행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3억에 가까운 인구가 농촌에 계속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

정리하자면 현재 중국 농촌 인구의 도시 이주가 더딘 이유는 후커우의 제약 때문이 아니라 편의 때문이다. 중국의 농가는 대부분 농업 활동과 임금 활동의 두 가지 소득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도시로 이주하려면 임금 소득이 농업 소득을 압도해야 하고, 도시의 비싼 주택비용 부담이 해소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도시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을 때 농촌 주민의 도시 이주가 가능해질 것이다. 더욱이 농촌 토지 사용권이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강화시켜가고 있기 때문에 농촌 생활에 익숙한 농민으로서는 구태여 농촌을 떠날 이유가 없다. 기억해야 할 사실은, 중국의 도시 주민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농촌으로 갈 수 없다는 점이다.

중국의 ‘유령도시’는 숙명?

어떤 의미에서 중국의 ‘유령도시’는 이상(異常) 현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정상(正常) 현상에 가깝다. 도시 면적의 증가는 정치적인 맥락에서 빠르게 진행될 확률이 높은 반면, 도시 인구의 증가는 더디게 진행될 확률이 높다. 이렇듯 면적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인구의 증가가 더디다면, ‘유령화’나 ‘공동화’는 피하기 힘든 결과일 것이다. 결국 지금과 같은 중국의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유령도시는 거의 숙명이라고 봐야 한다.

관건은 도시 면적의 증가에서 국가(지방정부)의 급진성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도시의 시장 상황보다 거래의 빈도와 규모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

⁵ 허쉐펑 저, 김도경 역, 『탈향과 귀향 사이에서』 파주: 돌베개, 2017.

게든 그 수치를 늘리려는 급진성이 나타나기 쉽다. 농촌 토지가 도시 토지로 변하는 급진적인 과정을 조율할 수 있다면 중국의 유명도시 현상은 훨씬 완화될 수 있다. **W**

참고문헌

- 허쉐핑 저, 김도경 역, 『탈향과 귀향 사이에서』, 파주: 돌베개, 2017.
- 刘科, 「金融助力房地产去库存研究——以鄂尔多斯市为例」, 『华北金融』2017年 第2期.
- 彭日东·张君, 「对鄂尔多斯以“房票”去库存实现棚户区改造的调查」, 『北方金融』2017年 第4期.
- 姚洋·张牧扬, 「官员绩效与晋升锦标赛——来自城市数据的证据」, 『经济研究』2013年 第1期.
- 赵燕菁, 「土地财政: 历史、逻辑与抉择」, 『城市发展研究』2014年 第1期.
- 중국국가통계국
- 중국도시건설통계연감